



## 이달의 인터뷰

최석철 대한급식신문 발행인

# 단체급식의 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급식신문 최석철 발행인



최 석 철 발행인  
대한급식신문

대한급식신문은 단체급식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대표 단체급식 전문신문이다. 급식이란 ‘외식 산업’을 비롯해 상업성·비상업성 급식 모두를 포함하는 정의로 우리 오리산업과 긴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급식 산업 내의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관계 기관들은 국내 급식·외식산업의 조명을 대한급식신문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국내 급식산업은 2006년 대형위탁급식업체의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체제로 변환하게 되었지만, 국내 급식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관련 종사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실정이었다. 이에 지금의 최석철 발행인은 대한급식신문을 창간하고 국내 급식 외식산업을 수준 높은 산업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이바지 해오고 있다. 또한 ‘우수급식·외식산업전, 설맞이 명절선물상품전, 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 등 연간 3회의 전시회를 주관, 국내 급식 외식산업의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매쎄이앤디 대표이사과 대한급식신문사의 대표이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석철 발행인을 본지에서 만나봤다.

## 한국오리협회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대한급식신문 발행인 최석철입니다.

오리는 중국 최고의 미식이 서태후가 미용식으로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비만예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기는 동맥경화로 인한 고혈압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쌓인 독을 풀거나 중화시키면서 원기를 북돋우어주는 해독보원의 으뜸약으로 꼽을 만한 것 중의 하나가 오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급식관련 전문신문을 제작해 오다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먹을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요리고기를 생산·공급하시는 한국 오리협회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대한급식신문이란

말 그대로 단체급식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는 단체급식 전문신문입니다. 당사가 말하는 급식의 범위는 소위 말하는 '외식' 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급식의 정의가 바로 상업성 급식인 외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교, 군부대 등의 비상업성 급식과 일반 식당 등의 상업성 급식을 아우르는 산업 내의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관계 기관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매체인 것입니다.

대개 관련업계의 공급자만 공유하는 형식의 전문신문이 많은 상황입니다만 본지는 지면의 구성만 봐도 소비자의 비중을 얼마나 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나오는 보도기사를 리라이팅 하는 형식을 지양하고 직접 취재하여 발굴하는 기사가 중심이 되며 각 분야급식소 탐방취재를 통한 생생한 정보전달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대한급식신문 창간 배경

2006년 대형위탁급식업체의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이후 우리나라 급식산업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체제로 변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급식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시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함께 종사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급식신문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한급식신문 창간 전부터 '우수급식산업대전' 이라는 국내에서 유일한 단체급식 전문전시회를 이미 개최하고 있었던 터라 더욱 전문적인 수준의 급식신문을 발행하는데 그 기틀을 마련해 둔 상태이기도 하였습니다.

창간 초반에는 단체급식 산업을 더욱 키우고 안전하고 위생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산업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언론으로서 가져야 하는 비판의 기능보다는 정보전달의 기능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현재는 단체급식 분야의 쟁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에 근거한 기사보도로 10만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인터뷰

최석철 대한급식신문 발행인

### 매년 연간 3회의 전시회 개최

대한급식신문은 각 분야별 4개국(편집국, 광고국, 사업국, 관리국)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시회는 사업국에서 총괄진행하며 1년에 3회 '우수급식·외식산업전' '설맛이 명절 선물상품전' '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급식·외식산업전은 2007년을 시작으로 올해 5회차를 진행한 국내 유일의 단체급식 전문전시회입니다. 보통 국내 전시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특히 식품과 관련된 종합전시회들이 많아 업체들도 관람객들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수급식·외식산업전은 '식품/식자재전' '보건/위생전' '시설/기자재전' 으로 분리하여 오직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전시회로 키워왔고 다양한 세미나 및 컨셉관 진행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1년에 1번 꼭 가봐야 할 전시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 우수급식·외식산업전에서는 100평 규모의 단체급식 표준모델관을 국내 최초로 선보여 많은 이슈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명절선물상품전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시작한 전문전시회입니다. 이 또한 일반 소비자 대상이 아닌 기업 및 단체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B2B 전문전시회입니다. 설과 추석에 앞서 대량구매를 위한 계약 및 상담을 위주로 하는 전시회로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급식신문사는 이렇게 사업국에서 전시회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므로 편집국은 사업과 완벽히 독립해 두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하였습니다.

### 급식카페란

'급식카페' 는 말 그대로 관계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카페입니다. 카페의 원래 목적이 커뮤니티인만큼 급식산업을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접해서 신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 급식 및 군납 식품으로써 오리고기의 전망과 발전가능성

한 마디로 오리고기의 급식진출은 아주 밝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양적 측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급식은 비상업적급식으로 학교, 군부대, 병원, 교도소, 기관 및 산업

# 대한급식신문



## ● 최석철 발행인의 이력

### \* 주요 약력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 경향신문사 경영기획실
- [주] 리드엑스포 / 이사
- [주] 메세이앤디 / 대표이사 (現)
- [주] 대한급식신문사 / 대표이사 (現)

체 구내식당 등을 지칭합니다. 이 곳들의 공통점은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예산한도 내에서 건강을 중심으로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이런 급식소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매뉴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류에 비해 육류 비중이 높은 국내 급식소 상황에서 최근 공유되고 있는 고민은 수입축산물 유입입니다.

오리고기는 꾸준히 급식소에 납품되어 왔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현재 활발한 납품중인 상황입니다. 어떤 급식소이든 분야를 막론하고 오리고기의 영양학적인 우수성과 다양한 레시피 보급만 꾸준히 이뤄진다면 단체급식 분야에 오리고기의 판로확대는 더욱 커질것입니다.

## 국내 급식산업이 발전하려면

급식산업은 이제야 일반대중들에게 또한 소비자들에게 조금 부각되고 있는 산업분야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급식산업의 형태와 성격 등 종사자들의 상황도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다. 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급식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체급식분야별 실정들을 최대한 많이 공유하고 매뉴얼화 해나가면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틀을 잡아나가기야 합니다. 급식이라는 산업이 자라나는 아이들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직장인들 등과 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해당 정부기관의 급식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함께 개념정립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공급자와 소비자들의 오픈마인드와 활발한 정보의 공유가 되어야만 국민의 1/4이 수혜자인 급식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